

201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형]

1	5	2	4	3	2	4	2	5	5
6	4	7	2	8	4	9	2	10	4
11	2	12	3	13	4	14	4	15	5
16	1	17	4	18	4	19	2	20	5
21	1	22	4	23	1	24	5	25	5
26	4	27	4	28	2	29	3	30	1
31	2	32	1	33	2	34	1	35	4
36	5	37	5	38	5	39	5	40	5
41	3	42	2	43	3	44	5	45	3

[화 법]

1.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파악하기

반대 1은 상대방이 이미 주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 사회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였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선정한 배경이 된다. ② 찬성 1은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했다. ③ 찬성 1은 청소년 범죄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범죄 심리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출제의도] 주장에 적절한 논거 활용하기

자료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지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청소년 범죄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④처럼 반대 측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찬성 측 주장이므로 자료 활용 입장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활용 방안도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처벌 강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기대에 따라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자료의 내용과 연관이 없다. ⑤ 청소년 범죄의 총동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므로 활용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반대 1은 현재 처벌 수위에 따라 교육과 선도를 통해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①, ③ 반대 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④ 찬성 측 입장이 아닌 반대 측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우발적 동기가 높다는 점이 이미 반대 측 입론에 제시되어 있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성격 파악하기

성준과 가람의 대화에서 화법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B]에서 가람과 성준의 대화에서 발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면 수용된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B]를 통해서 알 수 없다.

① [A]에서 성준의 '화가 난 표정'에 대해 가람이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시끄러운 식당에 있었다는 말을 통해 의사소통에 있어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에코백에 대한 배경지식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⑤ [E]에서 △△ 상가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 상가에서 △△ 상가로 목적지가 즉각 변경되었으며,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즉각적인 상호반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화의 함축적 표현 파악하기

가람과 성준의 대화에서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발화 의미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화 맥락을 통해 이를 추론해야 하는 경우는 ㉠이다. '그럼 ○○ 상가에 갈까?'라는 성준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가자', '가지 말자'라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 상가에서 할인 행사 하던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 상가로 가지 말고 △△ 상가로 가자'라는 의도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건의문 작성 전략 파악하기

예상 독자는 체육 선생님이든 건의문에서는 예상 독자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건의 내용이 학생 다수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체육 교구실 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운동 용품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건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점심시간에 체육 교구실을 개방하여 운동 용품을 빌려 준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투리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학교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임을 언급하여 교구실 개방에 대한 건의를 거듭 강조했다. ⑤ 건의 내용이 수용될 경우 교구실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 반 체육부장들이 순서를 정해 관리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7.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파악하기

개요의 II-1은 '공공자전거 이용 실태'인데 ㉠은 공공자전거 이용 실태가 아닌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의 문제점이므로 이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수정 방안의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대비'도 공공자전거 이용 실태가 아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 글을 쓰게 된 상황은 우리 시에서도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은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기 때문에 ㉠처럼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항목은 글을 쓰게 된 상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II-3-다'는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는 장애 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인데, 'II-2'에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으므로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 체계 미흡'을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보기>의 예상 독자는 시청의 정책 담당자인데 ㉠은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예상 독자를 고

려하여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바꾸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글을 쓴 목적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보내 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을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촉구'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8. [출제 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2에서는 '건강 및 체력 증진' 항목의 수치가 가장 높는데 이는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수단보다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의 도구로 자전거를 인식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2와 (다)를 통해 공공자전거가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다.

① (가)-1에서 '불편한 이유' 항목이 공공자전거 부족, 대어 및 반납 장소 부족 등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가)-2에서 '출퇴근 및 통학' 항목의 수치가 '건강 및 체력 증진' 항목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주목하여 주민들이 공공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부족함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가)-1을 보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가 94.5%로 거의 대부분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지 않는 이유가 대어 장소와 버스 정류장이나 역 사이가 멀어서라고 응답하여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의 환승 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가 미흡함을 들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공공자전거 운영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하며 실제로는 환승의 불편함 때문에 환승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선진국은 환승 편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환승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9.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의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과제 수행 기록'에서 '후배들이 친근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려 그때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예상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그리고'로 연결된 앞뒤 문장이 순접 관계에 있으므로 '그런데'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므로 '학교 성적이 하락하고 자각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로 고쳐야 한다. ② ㉡의 앞뒤 문장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은 이중 피동어이므로 '위축되어'로 고쳐야 한다. ⑤ ㉤에서 '겪다'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저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로 고쳐야 한다.

[문 법]

11. [출제의도] 표준발음과 로마자 표기법 이해하기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탐라’는 [탐나]로 발음되고, 이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Tamna’가 된다.

①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no’라고 표기해야 한다. ③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빛꽃’은 [별꽃]으로 발음되므로 beotkkot으로 표기해야 한다. ④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Gangneung이다. ⑤ ‘ㄹ’은 ‘ll’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Hallasan’이다.

12.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ㄴ에서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합니다’를 ‘근절해야 합니다’로 수정한 것은 ‘근절하다’와 ‘뿌리 뽑다’가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상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한 것이다. ㄷ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두 명을’을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으로 수정한 것은 수정 전 표현이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 또는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두 명’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한 것이다.

ㄱ에서 ‘쳐다보았다’를 ‘바라보았다’로 수정한 것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다. ‘쳐다보다’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은 학생들을 동일 선상에서 보거나 내려다보는 상황이므로 ‘바라보다’로 바꾼 것이다. ㄷ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는 번역 투의 문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13. [출제의도]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분하기

하나의 문장에 용언이 2개 이상 쓰일 때,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을 본용언이라 하고,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 한다. 또한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문장에서 본용언은 그것만으로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여 문장이 성립하지만, 보조 용언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의 ‘답다’는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며, ㄴ의 ‘더위’는 본용언으로 ‘온다’는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반면 ㄷ에 쓰인 ‘먹고’와 ‘갔다’, ㄹ에 쓰인 ‘접어’와 ‘떡볶다’는 각각 모두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ㄴ을 ‘날씨가 답다’와 ‘날씨가 온다’ 등의 두 문장으로 분석하면 ‘날씨가 온다’는 문장은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답다’라는 용언이 홀로 쓰인 문장이고, ㄴ은 ㄱ에 사용된 용언인 ‘답다’의 활용형 ‘더위’가 본용언으로 ‘온다’라는 용언이 보조 용언으로 쓰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ㄴ은 앞에 있는 ‘더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본용언이며, 뒤에 있는 ‘온다’가 본용언에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이므로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ㄷ의 ‘먹고’와 ‘갔다’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는 올바른 문장이거나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는 비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ㄴ은 ‘답(다)+어’, ㄷ은 ‘먹(다)+고’, ㄹ은 ‘접(다)+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된 ‘-아/어’, ‘-고’는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고 있는 보조적 연결어미이므로 ‘어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4. [A형 14번과 동일]

15. [A형 15번과 동일]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객체높임법 탐구하기

중세 국어에서 용언 ‘돕다’는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술-’을 사용하여 객체높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돕다’에 해당하는 특수 어휘가 없어 객체높임을 표현할 수 없다. 굳이 객체높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도와 드리니’와 같이 다른 특수 어휘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우시니’는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고,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이 현대 국어에서 ‘도우시니’의 형태로 바뀌어 객체높임을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사용된 문장은 객체높임이 실현된 문장일 것이므로, 현대 국어에서라면 ‘뵤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높임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은 선어말어미 ‘-술-’의 받침 ‘ㅁ’을 뒷말인 ‘-’에 이어져서 ‘뵤스ㅁㅁ’과 같이 표기했고, ㉣은 선어말어미 ‘-술-’의 받침 ‘ㅁ’을 뒷말인 ‘-’에 이어져서 ‘보스ㅁㅁ’과 같이 표기했다. 그러므로 ㉠, ㉡이 선어말어미의 받침 ‘ㅁ’을 뒷말에 이어져서 표기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은 모두 객체높임이 사용된 용언이다.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와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이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 포함된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에 사용된 선어말어미는 각각 ‘-술-’, ‘-졸-’, ‘-을-’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므로 ㉠~㉣을 보니, 중세 국어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사 회]

17. [A형 18번과 동일]

18. [A형 19번과 동일]

19. [A형 20번과 동일]

20. [A형 21번과 동일]

[인 문]

[21~23] <출전>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편,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물리적 태세와 목적론적 태세 그리고 지향적 태세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다양한 관점을 절충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핵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지향적 태세를 취하려면 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쥐와 같은 유기체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고 가정해야 하므로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① 개체의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지향적 태세이다. ② 물리적 태세가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개체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목적론적 태세의 전제이다. ④ 개체는 생존과 성장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지향성을 지니므로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욕망을 키우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기

<보기>의 ㄱ은 개체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통해 개체의 변화를 예측하는 물리적 태세의 사례이다. ㄴ은 엘리베이터의 설계 목적이나 기능을 파악하여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전략인 목적론적 태세의 사례이다. ㄷ은 컴퓨터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행동을 예측하는 지향적 태세의 사례이다. ㄹ은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예측하는 지향적 태세의 사례이다.

[과 학]

[24~26] <출전> Hewitt, 『알기 쉬운 물리학 강의』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물체의 운동 및 충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에 있는 ‘완전탄성충돌은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알짜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② 총알을 발사하기 전의 총의 속도는 ‘0’(정지 상태)이므로 운동량은 ‘0’이다. ③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면 운동량 공식에 의해 질량이 큰 쪽의 운동량이 많다. ④ 5문단을 통해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 보존되지 않는 충돌은 비탄성충돌임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세부 정보 적용하기

완전탄성충돌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4문단의 ‘완전탄성충돌에서는 충돌 시 두 물체의 방향과 속력이 완전히 교환된다. 예를 들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와 정면으로 완전탄성충돌을 한다면, 두 물체의 방향과 속력이 교환되어 운동하던 물체는 정지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운동하던 물체가 지녔던 방향과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운동하는 두 물체의 정면충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적용하면 A는 B의 운동량과 속도(방향 포함)로, B는 A의 운동량의 속도(방향 포함)로 움직여야 한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완전비탄성충돌’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완전비탄성충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돌 후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④의 경우 충돌 후 창과 표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였으므로 완전비탄성충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완전탄성충돌에 가까운 사례이다. ② 공이 굴러가다가 멈추는 것은 마찰력의 영향 때문이므로 충돌과는 무관한 현상이다. ③ 비탄성충돌의 예이다. ⑤ 반발력이 작용한 사례이다.

[예 술]

[27~28] <출전> 배제영·조용진,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27.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체색화에서 사용되지 않은 준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준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준법이란 점과 선을 활용하여 산수화에 표현된 산, 바위, 토파 등의 입체감, 양감, 질감, 명암 등을 나타내는 표현 기법이다. ② 준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준법에는 피마준, 미점준, 절대준, 수직준 등이 있다. ③ 준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준법을 통해 화가는 단순히 대상의 외양묘사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인식의 깊이까지 화폭에 그려낼 수 있다. ④ 수묵화에서 준법이 발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선의 예술이고, '묵'이라는 한 가지 재료를 쓰기 때문이다.

28.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선을 여러 개 그어 산의 등선을 표현하는 것은 피마준이다. 피마준을 사용하게 되면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의 산을 표현할 수 있다. 수직준은 선을 위에서 아래로 즉각 내려 그어 주로 강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데 뾰족한 바위산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풍악내산총람도」에서 A는 산등성이 선을 겹겹이 그어 표현한 피마준, B는 선을 위에서 아래로 즉각 내려 그어 표현한 수직준이다.

[독서]

[29~30] <출전> 김창협, 「동양잡」, 「승겸(崇兼)에게 보냄」

29. [출제 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두 번째 문단 '읽은 부분도 바쁘게 훑고 지나가 전혀 자세하지 않고, ~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통해 개괄적 읽기(훑어 읽기)보다는 자세히 읽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은 세 번째 문단 '구와 글자를 따라가며 일일이 이해하고'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ㄴ은 두 번째 문단에 '읽은 부분도 바쁘게 훑고 지나가 전혀 자세하지 않고 ~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ㄷ은 세 번째 문단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벗들에게 물어보아라'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ㄹ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0. [출제 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이 글의 글쓴이 'A'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독서를 게을리 하는 아들을 꾸짖으며 계획을 세워 꾸준히 독서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다. <보기>의 글쓴이 'B'는 독서를 할 때 목적을 세워 볼듯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와 달리 계획을 세워 꾸준히 독서해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조성기, 「창선감의록」

31. [출제 의도] 글의 서술방식 파악하기

사건은 조문화와 오냥중의 대화를 통해 시작되고, 전체경과 오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전체경이 거짓 혼인 허락을 조문화에게 전달하며, 전체경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전체경이 이 시련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알려 주고 있다. 이 소설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개입한 부분은 오냥중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오냥중의 부정적 특성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회화화하지는 않았다. ③ 제시된 부분의 사건 진행은 시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혼인 문제로 조문화 집안과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을 뿐 갈등의 해소는 보이지 않는다. ④ 제시된 부분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낼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⑤ 전체경이 피를 써서 조문화 부자를 속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사건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전기적(傳奇的)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32. [출제 의도]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내용 파악하기

전체경은 부친의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왔지만 조력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따라서 조력자를 만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울'은 전체경 모녀가 진공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되는 공간이므로 되돌아온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진형수와 전체경의 대화를 통해 전체경이 진형수의 귀양지인 운남에 남장을 하고 갈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조문화의 눈을 피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에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장을 한 것이다. ④ 운남은 진공이 황제의 명에 의해 가야 하는 귀양지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진형수는 전체경의 계획을 듣고, 운남이 너무 멀어서 여린 여자가 갈 곳이 아니라, 오후 진창운이 있는 회남으로 가라고 권유한다.

33. [출제 의도] 외부 자료를 통해 인물 이해하기

진공이 그의 딸과 윤여옥과의 약혼을 지키려 한 것은 신의(信義)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여옥과의 약혼을 지키려한 것이 현실적 욕망을 지향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오냥중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유교 윤리와의 관계 없는 행동으로 오냥중은 현실적 욕망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조문화는 진강을 옥에 가두고 이를 담보로 전체경에게 혼인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문화 부자는 현실적 욕망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④ 오부인은 딸이 윤여옥과의 혼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교적 윤리인 '열(烈)'을 목숨을 버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오부인은 사회적 관습의 틀에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⑤ 전체경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즉 죽을 구원하기 위해 조문화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지키고자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상대편을 속여 아버지를 급박한 위기에서 구하게 하기 위한 실리적 행동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전체경은 '효'라는 유교 윤리를 지향하나 윤리적 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시련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어, 전체경은 현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34. [출제 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이 파악하기

㉠은 진공이 옥에 갇혔던 일을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수원수구'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는가 의미로 ㉡와 관련 있는 한자성이 있다. ② '눈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한다'라는 뜻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보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한다. ⑤ '자기의 말이 모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시가]

[35~37] <출전>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송준, 「면앙정가(俛仰亭歌)」

35. [출제 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에 따른 풍류를 즐기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6. [출제 의도] 연시조의 내용과 구조 이해하기

(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세종 대에 지어진 작품이다.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는 작품에서 찾을 수 없고, 화자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는 근거도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강호 자연에서의 개인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이 몸이 ~해움도'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강호 자연에서의 화자의 풍류와 흥취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해움도'가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는 화자가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군은 이삿다'를 화자가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볼 때, 화자가 격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7.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하기

㉠은 '오늘이'와 '내일이라', 그리고 '부족하니'와 '유여하랴'가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 '유여하랴'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은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① ㉠은 '강파'를 '유신'하다 하여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는 '삿갓'과 '누역'을 사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겨울의 안빈낙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은 누렇게 익은 곡식의 모습을 '황운'에 비유하여 풍성하게 익은 곡식이 넓은 들만에 펼쳐진 모습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은 '경궁요래', '옥해은산'과 같이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소설]

[38~40] <출전>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38. [출제의도]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 파악

이 작품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이 겪는 스승과의 예(藝)와 도(道)에 대한 갈등을 그려내기에 적절하다. 특히 예술가 소설은 주인공의 예술관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독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⑤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외양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인물의 내적 독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초현은 고죽의 유일한 제자로 그의 문하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죽의 병시중을 들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고죽의 스승과 같은 예술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고죽에게 반하는 언행을 삼가는 진중한 태도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죽이 평생의 작품을 불태우려 할 때 고죽을 노려왔다는 것은 고죽의 기이한 자기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⑤의 '㉞: 자신을 불든 사람들과 고죽의 호통에 대한 초현의 노여움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도에 이르는 문'이라는 구절을 예를 연마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고죽의 예술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석담이 고죽을 밝은 얼굴로 살폈다.'는 것은 논쟁을 거듭하던 고죽의 말에 석담의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뻔뻔스러운 놈'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예술적 기교에만 관심을 갖는 고죽에 대한 석담의 꾸짖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불을 질러라'라는 고죽의 호통에는 사회에 불을 지피겠다는 고죽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철저한 자기 부정의 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는 주인공이 능동적인 창조자로서 독자적인 미적 성취를 이루어 내는 인물의 예술적 고뇌와 성장을 다룬 예술가 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예술가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주인공 고죽은 예를 중시하는 예술관을 지니고 있으며, 석담과 끊임없이 갈등한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의 작품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금시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로써 예술적 경지에 이른다. 따라서 석담의 문하에서 사회에 정진하던 8년 동안의 고련을 '스승의 예술관을 계승'하기 위한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라고 이해한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41~43] <출전> (가) 김광균, 「추일서정」
(나)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낙엽', '도문시의 가을 하늘' 등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름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생명력이 상실된 도시 문명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역설적 표현이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에 나타날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부분

이 (나)에서 '여름밤'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수족관'과 '아마존강'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아마존 강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생명력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가)에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작가가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했다는 ②번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전반부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과 '금행열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포푸라나무'가 서 있는 근경과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이 나타나고 있다. ③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퇴색한 공장 지붕을 묘사한 것이면서 화자의 황량한 정서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고독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듯 반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돌팔매'는 화자의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구름을 셀로판지에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므로 회화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43. [출제의도] 시구 및 시어의 의미 이해

'㉞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 자연의 생명력이 결핍되어 갈증을 느끼는 모습이다. 따라서 답은 ③번이다. ①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의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함을 환기하는 후각적 심상이므로 ㉞은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도시 건물의 철근에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연상하였고, 간판이 발산하는 열기에서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했다고 할 수 있다. ④ 시를 선물하니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시는 물질 문명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⑤ 꽃이 만발한 모습은 넘치는 생명력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수 필]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